



약천 남구만의 남해 유배와 영유시(詠柚詩) 연구

신 상 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머리말
2. 약천의 시대인식과 삶의 지향점
3. 약천의 남해에서의 모습과 「영유시(詠柚詩)」
4. 맺는 말

약천 남구만의 남해 유배와 영유시(詠柚詩) 연구

신 상 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머리말

약천은 효종과 현종, 숙종 시기를 살았다. 약천이 활동하던 이 시기는 남인과 서인 사이에 당쟁이 치열하던 시기였고, 남인이 힘을 잃은 후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어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약천은 남인과의 대립 속에서는 서인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노론과의 대립에 있어서는 소론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한 만큼 약천은 숙종 5년(1679) 남해로 유배되는 것을 시작으로 83세의 일기로 숨을 거둘 때까지 여러 번의 유배¹를 다녀와야 했다. 약

1.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37권, “허견이 날뿔 때에 소를 올려 극력 말하다가 남해로 귀양갔고, 무진년에 이조판서(송시열)가 쫓겨날 때 강대하여 극력 다루다가 경원으로 귀양 갔고, 기사년(폐비때)에 또 강릉으로 귀양 갔고, 갑술년에 영의정이 된 뒤에 여러 사람이 언론이 공격했으나 다행이 전하의 살피심이 매우 밝아

천이 남해로 유배를 가게 되는 이유는 “허적과 윤희가 임금의 충애를 등에 업고 남의 처첩을 빼앗아 간음하고 추행을 하는 등 온갖 패악한 짓을 행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었다.” 이 때 약천이 허적과 윤희의 포악무도한 행위를 지적하고 그릇됨을 고치기 위해 숙종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²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천이 도리어 유배를 가게 된다. 이 때 약천이 ‘상소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겼다’³고 한다. 이처럼 약천은 그 어느 사람도 불의를 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홀로 그 일의 부당함을 지적한 인물이었다. 그의 이러한 성품은 현종이 “남모는 사람됨이 강직하고 분명하다”⁴고 한 것에서 약천의 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서 약천은 유배를 가게 된다. 처음 약천의 유배지는 거제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장기에 있던 송시열이 거제로도 유배지를 옮김에 따라, 약천의 배소가 다시 남해로 변경된다. 약천의 남해유배는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이후, 숙종 6년(1680) 3월이 되어 경신환국이 단행된다. 이때 윤희가 사사되고 삭탈관직되어 내쫓기고 허적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약천은

큰 죄는 면하였다가 끝판에 아산으로 귀양갔다. 구만이 처음에는 권력가진 간신에게 거슬리고, 뒤에는 전하의 기위에 저촉되어 여러 번 귀양 가고 쫓겨나고 남의 구설에 곤욕을 당해도 조금도 꺾이지 않았으니 충성과 절개가 가히 옛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사오며, 후세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2. 성당재, 「약천 상소문의 문예미와 현실대응」, 『인문과학』 36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pp. 241-245 참조.

3. 『조선왕조실록』 숙종 5년 2월 10일 을해조, “이른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도 허견이다. 이 몇 가지 일로 나라가 온통 시골벽적으로 소란을 피워 떠들었지만 온 조정이 모두 그의 당여(黨與)인 까닭에 어느 한사람 말하는 자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상소를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기고 있다.”

4. 「약천집」, 「연보」 50세(1678년) 11월 무오년 조 참조.

다시 도승지로 조정에 복귀하게 된다.⁵ 약천이 남해에 머문 것은 9개월 정도이다.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고 있는 『약천집』⁶에는 276수의 시와 207편의 상소문이 실려 있다. 약천의 시는 상당수 서문[并序]과 함께 전한다. 암행어사로서, 관찰사로서, 유배를 가는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심회를 서문에 적고 시를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에는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그리고 군왕으로서 왕도정치를 피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 훈구권신들의 부패와 부조리도 가감 없이 드러내어 비판하고 있다. 약천의 유배는 이러한 당쟁의 격랑 속에서 당의 권력과 일신의 영예를 떠나 국가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강직함이 만들어낸 결과라 여겨진다.

지금까지 약천에 대한 연구는 약천의 정치·국방사상, 문학론 등 다양한 방면에서⁷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약천의 ‘남해 유배시’에 대한 연구도 이미 있어왔다.⁸

하지만, 본고에서는 약천이 남해에 머무르는 동안의 일상과 문학작

5. 성당제, 위의 논문, p.247 참조.

6. 본고에서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발간한 국역 약천집(성백호 옮김)을 텍스트로 한다.

7. 강신엽, 「남구만의 국방사상」, 『민족문화』 14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강신엽, 「남구만의 정치사상」, 『소헌 남도영 박사 고회기념 역사학논총』, 민족문화사, 1993; 장정룡, 「동해시 망상동 유적과 약천 남구만 시조작품」, 『강원민속학』 11집, 강원도 민속학회, 1995; 성당제, 「상소문의 문예미와 현실대응」, 『인문과학』 36집, 인문과학연구소, 2005; 성당제, 「남구만 시의 품격」, 『한국한문학회연구』 35집, 한국한문학회, 2005; 이승철, 「동해 약천마을과 액천 남구만의 시조 옛보기」,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 민속학회, 2006; 김영주, 「약천 남구만의 문학론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33집,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8.

8. 지난해(2010. 11. 26.) ‘약천 남구만 선생의 남해유배문학 재조명’이란 주제로 남해유배문학 학술심포지엄이 열렸고, 이 심포지엄에서 「약천 남구만 선생의 생애와 가문」, 「남해유배와 작품의 의미」, 「유배작품을 이용한 관광 명품화 전략」이 발표되었다.

품에 머무르지 않고 남해에 유배오기 이전의 약천의 여러 가지 모습에도 주목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는 약천의 남해유배가 그의 강직함과 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약천집』에 실린 모든 시문을 대상으로 하여 약천의 경세에 대한 사상과, 정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약천 자신의 삶의 지향점 등도 함께 살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해유배시기의 약천의 유배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약천의 시대인식과 삶의 지향점

1)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과 백성들의 어려운 삶의 모습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약천집』에는 모두 276수의 시가 전한다. 그러면 이들 시들을 대상으로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약천의 심정을 살펴보자.

약천은 임인년(1662, 현종 3) 2월 7일에 경상도 진흙어사(賑恤御史)가 되어 민정을 순찰하러 간다. 약천이 진천의 객사에 이르러서 퇴계가 쓴 시를 읽게 되는데, 그 시에 차운한 시가 있다. 그 시의 함련(韻聯)과 경련(頸聯)에 “명령을 받들고 어제 서울에서 내려와, 굶주린 백성 구휼하러 이제 남쪽 바닷가를 가네. 봄이 돌아온 농가의 이랑엔 아침 들밥 먹이는 이 드물고, 해 저문 마을에는 저녁밥 짓는 연기 드무네.”⁹라고 적

9. 『약천집』 권1, 「鎮川客舍 次韻退陶詩 并序」, “(…)銜命昨從天北極 恤飢今向海南邊 春歸農畝稀朝饑 日暮村閭少夕煙 (…)”

고 있다. 진흙어사가 되어 지방의 고을을 돌아보면서 목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어려웠다.

다음의 시를 보자.

少時憂北方 젊었을 때에 북방을 걱정하여
陳疏自玉堂 옥당에서 상소를 올렸는데
今來值饑歲 지금 부임해 와서 흉년을 만나
慘見赤子殤 백성들 죽는 것 참혹하게 보노라.
救死且不贍 죽음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違恤申封疆 어느 겨를에 국경을 튼튼히 할까
乘春遠于宣 봄을 타고 멀리 순행하여 임금님 뜻 전하고
問俗窮荒鄉 풍속을 묻느라 아득한 고을 모두 찾아다니네
議貸先陞危 구휼을 의논하여 위험에 빠진 자들 먼저 구제하고
勸耕及載陽 농사를 권장함은 봄철에 미리 하여야 한다오
但恐負夙心 다만 옛 마음을 저버릴까 두려우니
詎敢憚路長 어찌 감히 먼 길 다니는 것을 꺼릴까¹⁰

이 시는 약천이 함경도관찰사로 재직하던 때인 44세 6월에 부령이라는 곳에서 쓴 것이다. 관찰사로서 임금을 대신해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지느라 애쓰는 약천의 모습이 선하다. 한 고을이라도 더 다니면서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을 살피고자 하는 약천의 마음 한 켠에, 흉년에 죽어

10. 『藥泉集』 권1, 「玉連堡 次荷谷韻」

가는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시에도 “사람들 굶주려 성 밖에는 술 껌질 벗기는 이 많고”¹¹, “백성들 굶주려 구렁과 골짜기에 버려지고 길가에 쓰러져있다”¹²고 적고 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술 껌질이라도 벗겨서 먹어야 하는 굶주린 백성들의 힘든 삶의 모습이 그의 시에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이처럼 진흙어사로 남쪽 지방을 다니면서 본 백성들의 모습은 “예전에 일찍이 보지 못하던 일”¹³이었다라고 할 만큼 비참함 그 자체였다. 다음의 시를 보자.

厭看東海三千里 동해의 삼천리 넓은 바다 실컷 구경하고
徧倚南州七十樓 남쪽 고을의 칠십 누대 두루 의지하였네.
觀覽轉多心況少 관람이 많을수록 마음에 재미가 적으니
眼前凋瘵是誰憂 눈앞의 백성들 병폐 이 누구의 근심인가.¹⁴

진흙어사 직을 수행하면서 다녀본 고을마다 백성들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데,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설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풍광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약전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11. 『藥泉集』 권1, 「安東次成使君 後高 映湖樓韻」 第一首, “(…) 人飢郭外多松採 歲旱田間少麥收 只有一心傷 白屋 更將何興上朱樓 (…)”

12. 『藥泉集』 권1, 「次李承旨季周韻」, “渠填壑棄與途僵 (…)”

13. 『藥泉集』 권1, 「次李承旨季周韻」, “(…) 此事從前見豈嘗 (…)”

14. 『藥泉集』 권1, 「安東次成使君 後高 映湖樓韻」 第二首, “(…) 厭看東海三千里 徧倚南州七十樓 觀覽轉多心 況少 眼前凋瘵是誰憂”

다음은 금산 직지사의 성항이라는 스님이 사재를 털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했다는 말을 듣고 적은 시를 보자.

皓首龐眉一老師 머리가 희고 눈썹이 긴 한 늙은 스님
深悲飢火惱蚩蚩 백성들의 굶주림 매우 슬퍼하여 걱정하였네.

(…)

可知愛物終能濟 사람들을 사랑하면 끝내 구제할 수 있으니
吾輩爲官反愧伊 우리네 관리들이 도리어 그대에게 부끄럽네¹⁵

성항스님이 자비심으로 백성을 구휼하는 것에 고마워하고 칭찬하면서 그런 만큼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사랑해야 할 관리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반문하고 있다. 조선의 선비들은 유학이 지향하는 효행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여 스님들을 무시해 왔다. 하지만 효(孝)의 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충이라 할 수 있는데, ‘충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말하고, 이러한 마음이 사람들에게로 번져가는 것을 서’라고 한다. 공자는 자신의 도를 ‘충서’라고 했는데, 충서의 중심엔 충(忠)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벼슬하는 관리들이나, 관리들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이 땅의 선비들은 어떤가. 과연 충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약천은 이 시에서 성항스님의 선행을 통해 당시 관리들을 대신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

다음의 시를 보자. 이 시는 길가에서 아이를 안고 햇볕을 쬐면서 어

15. 『藥泉集』 권1, 「金山直指寺僧性沆 以私聚穀設粥賑飢 聚文書以來 余召與語 贈以一律」

린아이의 머리에서 이를 잡아주는 할머니의 모습을 적은 것이다.

老嫗當途坐 늙은 할미 길가에 앉아
抱兒向日晴 아이 안고 햇볕을 향해 있네
理頭知愛暖 머리를 만짐은 따뜻한 햇볕을 좋아해서요
捫蝨且隨明 이를 잡아줌은 또 밝은 빛을 따라서라오
惻怛求安意 편안하기를 구하는 뜻 간곡하고
丁寧去害情 해로움을 제거하려는 심정 간절하네
誰能將此事 누가 이 일을 가져다가
推得保民誠 백성을 보호하는 정성에 미루어 쓸꼬¹⁶

늙은 할머니가 어린 아이의 머리에 생긴 이를 잡아 주고 있다. 햇볕을 향해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따뜻함’과 ‘밝음’을 좋아하고 따르는 마음이며, 이는 편안함을 구하고, 해로움을 제거하려는 마음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 늙은 할머니가 자애로운 손길로 손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이를 잡아주는 마음을 백성에게로 옮겨서 군주와 사대부들이 백성을 자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약천이 ‘누가 이 일을 가져다가 백성을 보호하는 정성에 미루어 쓸까’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도 임금을 비롯한 사대부들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앞장에서 살핀 것처럼, 약천이 살고 있던 당시의 조선은 굶주린 백성

16. 『藥泉集』 권1, 「路旁有老嫗 抱兒曝陽 理頭捫蝨 感而賦之」

들과, 굶주려 죽은 백성들이 길과 골짜기에 널려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이 시는 이런 면에서 그 시적 정서가 신라의 향가인 「안민가」와 맞닿아 있다. 「안민가」에서 충담사가 경덕왕에게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임금은 아버지이고 /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로의 설정은 군주와 신하와 백성을 갈등관계가 아니라 가족 관계로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곧 가족과 같은 신의에 바탕하여 각자의 신분에 맞게 행한다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것임을 말한 것이다. 논어의 안연편¹⁷⁾과, 「헌문편」¹⁸⁾의 말을 빌어 노래한 「안민가」의 이 말은 결국, 왕도정치의 근본은 ‘수기(修己)’에 있으며, 이 수기의 목적은 ‘안백성(安百姓)’에 있다는 것이며, 이는 임금답게, 신하답게 라는 ‘답게’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약전이 노래한 ‘할머니가 이를 잡아주면서 어린 아이가 따뜻한 햇볕과 밝은 빛을 따라 편안함에 나아가고, 해로움을 제거하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이끌어 주는 모습’은 “무릇 어진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두루 통하고 싶으면 남도 두루 통하게 해준다”는 공자의 말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진정성[誠]있

17. 『論語』「顏淵」, 공자가 제나라 경공에게 정치를 가르치면서 한 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이다. 진실로 만약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더라도 내가 얻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겠는가. 君君 臣臣 父父 子子 信若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

18. 『論語』「憲問」, “자라가 군자에 대해서 묻자, 자기 닦기를 경으로서 하고, 자기 닦기를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서 하고, 자기 닦기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 堯舜도 어려웠다. 子路問君子 修己以敬 如斯而已乎, 修己以安人 如斯而已乎 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는 정치가 행해질 때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삶이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2) 약천의 삶의 지향점

『약천집』에는 약천의 생애 지향점을 알 수 있는 시가 전한다. 물론 약천이 남긴 「소차(疏筵)」를 비롯한 여러 상소문에도 약천의 생각이 담겨 있지만, 공식적인 문서에 자신의 사적인 생각을 진솔하게 담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 담긴 소회가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시는 약천이 39세가 되던 해에 쓴 것으로, 허적을 탄핵하다 병조좌랑으로 전직된 이민서가 보낸 시에 차운하면서 쓴 시다. 친구들을 지방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병조에 남아 있어야 하는 허전함과 서운함이 나타나 있다.

我生三十九 내가 태어난 지 삼십구 년이 되었으니
閱歲非不久 세월을 겪은 것 오래지 않은 것 아니나
無柰質固甚 자질이 매우 고루하여
於道未窺牖 조금도 도를 엿보지 못하였네
譬彼瞽得相 비유하면 저 봉사가 길잡이를 얻은 듯
幸託二三友 다행히 두세 친구에게 의탁하였다오
文章砭是非 문장의 옳고 그름을 질정하고
義理研可否 의리의 가부를 연구하였네
憂時勉激揚 세상을 걱정하여 분발하려 노력하였고

愛君期繩糾 군주를 사랑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것 기약하였네

(…)

縱懷田園樂 비록 전원의 즐거움을 생각하나

猶慙塵事誘 아직도 세속에 유혹됨이 부끄럽네

待君賦歸來 그대가 관직을 버리고 돌아오거든

許我耕而耨 나와 함께 밭이나 가세나¹⁹

이 시는 친구들과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39세가 될 때까지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적고 있다. 시를 통해서 볼 때, 약전은 학문을 하고 벼슬을 하면서 오직 문장이 옳고 그른지, 의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고민하고, 이를 통하여 세상을 걱정하고 군주의 잘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약전의 이 같은 모습은 “맹자는 웅장(熊掌)과 어물(魚物)을 비유하고 의(義)를 취하고 삶을 버릴 것을 권면하였다”고 하여, 구차한 삶보다는 의로운 죽음을 취하겠다고 말한 맹자처럼 의로움을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약전은 그의 시에서 굴원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약전에게 있어 굴원은 따르고 싶고 쫓고 싶은 인물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것에 기인해 본다면, 남해 유배지에서 약전이 지은 「영유시」 20수는 굴원과 같은 삶의 가치를 닮고자 한 약전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다.

19. 『藥泉集』 권1, 「彝仲出錦城 永叔寄詩 彝仲次其韻 要余屬和 伊時永叔又出舒川 不勝悵悵 情見于辭」

하지만, 이러한 약천도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민서와 영숙이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밀려 작은 시골로 떠난 후에 자신의 의지로 바뀌기엔 현실의 부조리가 너무나 견고함을 인식한다. 그러면서 벼슬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조정에 남아 자신의 뜻을 펴고픈 마음사이에서 방황한다. 이 시에는 출사와 처사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약천의 모습도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전원의 편안함을 희구하는 약천이지만, 그보다 출사를 통해서 현실을 변화시켜나가야겠다는 의지는 여전하다. 「백헌(白軒) 이상국(李相國)이 궤장(几杖)을 하사받은 영화를 읊은 시에 차운하다」라는 시에서도 “편안한 날에 국체를 높일 것 생각하였고, 밥 먹다가 목 메는 것 조심하는 때에 백성의 굶주림 구제하고자 하였다”²⁰고 하고 있으니, 국가와 백성을 생각하는 약천의 애뜻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의 「지락정에서」라는 시는 약천의 삶에서 어떤 것이 즐거운 것 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以樂名亭有所思 낙으로 정자 이름을 지으니 생각한 바가 있어
 還留一語示登斯 한 말씀 남겨 이 정자에 오르는 이에게 보였네.
 言同孟氏真宜誦 함께 즐기라는 맹씨의 말씀²¹ 참으로 외워야 하고
 志後希文是可師 뒤에 즐기려고 한 희문의 뜻²² 진실로 본받아야 하리

20. 『藥泉集』 권1, 「次韻白軒李相國賜几杖樂恩詩」, “思尊國體安身日 欲濟民飢戒鐘辰”

21. 『孟子』, 「梁惠王下」, “今王鼓樂於此 百姓聞王鐘鼓支聲 管籥之音 舉疾首蹙頰而相告曰 吾王之好鼓樂 夫何使我至於此極也 父子不相見 兄弟妻子離產 今王田獵於此 百姓聞王車馬之音 見羽旄之美 舉疾首蹙頰而相告曰 吾王之好田獵 夫何使我至於此極也 父子不相見 兄弟妻子離產 此無他 不與民同樂也”

22. 『范文正公集』, 「岳陽樓記」,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歟”

莫遣哀情生極處 즐거움이 지극한 곳에 슬픔이 생겨나지 않게²³ 하여야
하니

敢忘良士戒荒時 어진 선비가 노는 것을 경계²⁴하는 때 어찌 잊으랴.

蒙莊謬說元無取 몽장의 황당한 말 원래 취할 것이 없으니

濠上遊魚我不知 물가에 노는 고기들 나는 알지 못하노라.²⁵

이 시는 정자의 이름을 ‘지락’ 이라고 지은 후 ‘락(樂)’ 이라고 이름
한 이유를 적어 놓은 것이다. 약천이 하필 ‘락(樂)’ 으로 정자의 이름을
삼은 것은 무엇일까?

공자는 일찍이 논어의 「학이편」에서 ‘학문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하
나하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
의 삶을 살아가는 넉넉함’ 을 말한바 있다. 곧, 공자의 학문의 목적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가는 것이다.
그 속에 인생의 참 즐거움이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약천이 추구하는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이 시에서는 인
생에 있어 약천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이 시
를 통해서 볼 때 약천의 즐거움은 세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 즐거움은
‘즐거움을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 이고, 두 번째의 즐거움은 ‘천하
의 즐거움 보다는 근심을 먼저 생각한다’ 는 것이며, 세 번째 즐거움은
‘즐거움의 이면에 담겨있는 슬픔을 생각해야 하면서, 즐거워하되 지

23. 『古文眞寶後集』, 「大寶箴」, “樂不可極 樂極生哀”

24. 『詩經』 〈唐風 蟋蟀〉, “好樂無荒 良士懼懼”

25. 『藥泉集』 권1, 「知樂亭」

나치게 즐거움에 탐닉됨이 없어야 함’ 을 말하고 있다.

약친은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을 늘 생각하면서 스스로 노는 것을 경계 하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약친은 “스스로 소식을 하면서”²⁶ 스스로를 경계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²⁷, 만물의 이치가 곧 나로부터 모두 구비되어 있음을 자각하면서²⁸ 스스로 즐거움을 경계하려고 했다.

다음의 시를 보자

古來賢達人 예로부터 현달한 사람은
一去不計腹 한 번 가면 구복(口腹)을 따지지 않으며
杵聲代鼓琴 방아 찧는 소리 거문고 소리로 대신하고
木食甘遜迹 나무 열매 먹으며 은둔하는 것도 달게 여기네.
必欲問生理 반드시 삶의 이치를 묻고자하면
心已外物逐 마음이 이미 외물을 쫓아야 할 것이니.

26. 『藥泉集』 권1, 「直廬愁寂 疊前韻懷僚友」, “(…)自樸猶素食 空詠伐檀輪” 소식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한갓 녹몽만 먹음을 이르며 별단륜은 수레바퀴를 만들 박달나무를 제는 것을 말한다. 《시경》 위풍(魏風) 벌단(伐檀)에, “어차어차 박달나무를 베어, 하수(河水)의 물가에 놓아두니, 하수가 맑고 또 잔물결이 일도다. 벼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벼 삼백 단을 얻을 수 있으며, 겨울 사냥도 하지 않고 밤 사냥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네 뜰에 매달린 담비를 볼 수 있겠는가. 저 군자여, 공밥을 먹지 않는다. [坎坎伐檀兮 真之河之干兮 河水清且漣漪 不稼不穡 胡取禾三百廩兮 不狩不獵 胡瞻爾庭有縣貍兮 彼君子兮 不素餐兮]” 하였는바, 곧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 시만 읊는 자신을 가엾게 여김을 말한 것이다.

27. 『藥泉集』 권1, 「修真圖 二首」, “(…)忘生徇慾是深羞” 정씨(程氏)는 이천(伊川) 정이(程頤)를 가리킨다. 《이정전서(二程全書)》 유서(遺書)에, 정이천이 일찍이 장역(張繹)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고난 기운이 매우 부족하여 30세가 되면서 점점 성해졌고 4, 5십 세가 되어서야 완전해졌으니, 지금 태어난 지가 72년인데도 근골(筋骨)을 비교하면 젊었을 때에 비하여 줄어든 것이 없다.” 하였다. 장역이 “선생께서는 아마도 타고난 기운이 부족하다고 여기시어 보생(保生)을 잘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묻자, 이천은 묵묵히 있다가 말하기를, “나는 생명을 잊고 욕심을 따르는 것을 심한 수치로 여긴다.” 하였다.

28 『藥泉集』 권1, 「修真圖 三首」, “(…)萬物既知皆備我 順之爲聖逆爲僇”

乞米雖甚苦 쌀을 구걸하는 것이 비록 괴로운 것이지만

人役尤可憐 사람에게 부림을 받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것이네.²⁹

이 시는 공자가 안빈낙도의 삶을 살다간 안회(顏回)를 기리는 글³⁰과 맞닿아 있다. 가난하지만 천도(天道)³¹를 깨닫는 길에서 즐거워 할 수 있는 삶, 비록 그 길이 쌀을 구걸할 만큼 구차하고 괴로운 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설정한 삶의 바른 길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이다. 시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림을 받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라는 약천의 말은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에 자신을 맞출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약천이 추구하는 삶은 사물의 당연한 이치를 추구하며, 자연의 이치를 따라 마음으로 파악하여 나아가는 것에 있다.

다음으로 「물결을 돌리는 돌」이라는 시를 보자. ‘스스로 흐르는 물’처럼 세상은 바른 길을 찾아 갈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斷岸橫成障 끊긴 언덕이 물길을 가로로 막으니

狂流激作灘 물살 급하게 흘러 여울 되었네.

漸看波動壁 점점 물결이 벽을 움직이는 것 보니

誰道石廻瀾 누가 돌이 물결을 돌린다고 하겠나.

大勢終難阻 큰 흐름은 끝내 막기 어려우니

中間祇不安 벽의 중간이 마침내 불안해지네.

29. 『藥泉集』 권1, 「眷言思休 寓郡望姓名字 離合成詩」

30. 『論語』, 「雍也」, “賢哉 回也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 不改其樂 賢哉 回也”

31. 『論語』, 「公也長」, “夫子之言 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沈吟多慷慨 생각에 잠겨 여러 가지 강개한 마음을 노래하며
重感在川觀 냇가에서 구경하며 거듭 감탄하네.³²

이 시는 약천이 해남 유배시절에 쓴 「영유시」처럼 ‘비홍’의 수법으로 쓴 것이다. 이 시에서 ‘물결을 돌리려는 돌’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간신들이다. 역사라는 큰 흐름을 볼 때 어느 때든 물길을 가로 막으려는 사람은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영원히 막지는 못했다.

약천이 냇가에 앉아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은 공자가 흐르는 물을 보며 감탄한 것³³과 같은 이유이다. 그것은 물[水]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에 생명을 주고, 꾸불꾸불 돌아가지만 항상 같은 원리를 따르며, 솟아올라도 결코 마르지 않고 흘러가며, 백길의 계곡도 두려움 없이 흘러 나아가며, 유순하고 탐색적이어서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며, 만 번이라도 꺾여 흐르지만 항상 동쪽으로 흘러가는,³⁴ 그래서 군자는 물[水]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아는 것³⁵이다.

이처럼 약천은 이 시에서 물[水]과 돌[石]이라는 자연사물의 보편적

32. 『藥泉集』 권1, 「迴瀾石」

33. 『論語』, 「子罕」,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捨晝夜”

34. 「荀子」, 「宥坐」, “孔子 觀於東流之水 子貢問於孔子 曰君子之所以見大水 必觀焉者是何 孔子曰 夫水遍與諸生而無爲也 似德 其流也埤下 裾拘必循其理 似義 其洗滌乎不瀦盡 似道 若有決行之 其應佚若響響 其赴百仞之谷不懼 勇 主量必平 似法 盈不求概似正 淖約微達似察, 以出以入以就鮮潔 似善化 其萬折也必東 似志 是故君子見大水必觀焉”

35. 「孟子」, 「離婁下」, “徐子曰 仲尼亟稱於水曰 水哉水哉 何取於水也 孟子曰 原泉混混 不捨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 苟爲無本 七八月之間雨集 溝澮皆盈 其涸也 可立而待也 故聲聞過情 君子恥之”

인 현상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신 이러한 원리에 따라 세상은 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3. 약천의 남해에서의 모습과 「영유시(詠柚詩)」

1) 남해에서의 약천의 모습

약천은 남해로 유배 가는 도중에 7편의 시³⁶를 쓰고, 유배지인 남해에서 「영유시」 20수를 비롯하여 모두 28수의 시를 짓는다.³⁷ 약천이 남해에서 남긴 시는 「영유시」 20수를 제외하면 8수 밖에 안된다. 그것은 제목으로 본다면 더 적다. 이렇게 약천의 시가 적은 것은 그의 시에서 적은 것과 같이 병을 앓았다는 것과 스스로 시를 짓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영유시」를 통해서 볼 때, 약천은 남해에 머무는 동안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보인다. 약천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눈에 비친 당시 남해의 풍광과 백성들의 삶의 모습 등을 시로 적어 놓았다.

「영유시」는 유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여 노래한 것이다. 이 시는 모두 20수로 ‘지자 평성운(支字平聲韻)’으로 지어졌다. 운자는 ‘피(皮), 기(肌), 사(師), 시(時)’이다. 영유시를 쓰게 된 이유에

36. 「화성의 길에서」를 비롯하여 「백마강 나루터에서」, 「은진점에서」, 「숙부가 보여주신 시문에 삼가 차운하다」 2수, 「사질을 부여에서 전송하고 우거로 돌아와 슬피 울다」 2수 등 모두 7수이다.

37. 남해 유배시에 지은 시는 「영유시」 20수를 비롯하여 「감생덕함이 보여준 시문에 차운하다」 3수, 「내가 남쪽으로 귀양을 때 교리 최여화는 내가 조령을 따라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영천으로 나와 함창에서 맞이하려 하였는데, 나는 팔랑현을 따라 왔으므로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 내가 유배지에 와서 여화가 함창에서 지은 율시 두수를 보내왔으므로 차운하여 답하였다」 2수, 「화방사에 유숙하면서 문안과 응상 두 스님께 주다」, 「망운산에 오르다」, 「하생상유에게 주다」 등 28수이며, 1668년(현종9년)에 「해남의 인가에서 쓰다」라는 시 1편이 있다. 해남에서 쓴 시는 모두 7편 29수이다.

대해서는 「并序」에 자세히 적혀져 있다.

“기미년(1679, 숙종 5)에 나는 성상의 명령을 받들고 거제도도 유배 갔다가 남해로 옮겨 갔다. 가을이 깊어 밤이 길어지자 잠이 더욱 적어졌으며, 평소 기력이 허약한데 눈까지 어두워져서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전전반측하며 함께 말을 나눌 사람이 없기에 유자를 읊은 시를 지어서 첩운(疊韻)으로 20수를 이루었으니, 이것을 시라고 여겨서가 아니요, 애오라지 스스로 적적한 마음을 달랠 뿐이다. 이 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 염분이 많아 풀은 난초(蘭草)와 혜초(蕙草) 같은 것이 없고 나무는 천초(川椒)와 계수나무 같은 것이 없으니, 향기로운 것을 마시고 먹으며 향기로운 물건을 차고 입고자 한다면 이 유자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아, 유자는 비록 하찮은 한 물건이나 비흥(比興)의 체(體)와 멀고 가까운 뜻을 또한 여기에 미룰 수 있으니, 마음이 이끌려 차마 끊어버리지 못함과 말이 중복되는데도 삭제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³⁸

서문에서 보면, 약천이 「영유시」를 지은 것은 무엇보다 유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으며, 또, 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유자가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며, 더불어 유자를 통해서 우리 삶의 바른 이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38.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 并序」, “歲己未 承恩謫配巨濟移南海 及秋深夜長 眠睡益少而氣素羸弱 眼且昏翳 不能曉燈讀書 輒轉枕席 無與晤語 因作詠柚詩 疊韻成二十首 非以爲詩 聊自遣意耳 此地環海斥鹵 草無蘭蕙 樹無椒桂 如欲飲芳而餐馨 佩芬而服香 捨此柚何以 噫 柚雖一微物 比興之體 遠邇之義 亦可於此乎推之意之留連而不已 言之煩復而不刪者 有以也夫”

약전은 “남해로 유배 온 이후 여러 달 동안 병을 앓았다”³⁹고 하였다. 약전에게 있어 유배는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 거제도도 배소가 정해지고, 거제도도 가는 도중 「화성을 지나며 적은 시」에 “아름다운 봄에 들 마을을 대하니 헤어지는 근심만 가득할 뿐이네. 울타리에는 복사꽃 살구꽃 활짝 피었네. 소등에 탄 저 사람 누구인가, 이내 몸 함정에 빠짐 부끄럽네.” 라고 하여 봄날 복사꽃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핀 계절에 자신은 죄인이 되어 유배 가고 있음을 한스러워 하고 있다. 그리고 ‘백마강 나루터에서’ 쓴 시에서도 “마을에서 우선 술을 받아 술잔을 기울이노니, 굳이 깨고 취함 물을 것 없다”고 한 것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술로 잊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또, 유배지인 남해에서 ‘교리 최석정에게 답한 시’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我不尤人豈怨天 내 사람을 탓하지 않으니 어찌 하늘을 원망하랴
 竄身炎海職當然 무더운 바닷가로 멀리 귀양 옴 진실로 당연하네
 憂時有素終招過 평소 세상을 걱정하였는데 끝내 허물을 불렀고
 學道無成且味權 도를 배웠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또 권도(權道)에 어
 두웠네

39. 『藥泉集』 권2, 「次金生德恒示詩韻 并序」, “余竄南海 抱疾連月 聞晉州士人金君德恒習越人之術 請與相見 金君不以三餐爲遠 滄溟爲險 惠然來顧 留之二日 得其從容講乎曆算之法 辨乎詩草之藝 談之囊螢 令人忘倦 於是乎余驚其所學之博 不但醫道 爲可重也 此地無人士與語者 而乃得見君 韓公所謂發孤笑於群憂者 正余意也 君又出示其手寫唐宋聯珠詩格一卷曰 吾今年老 無所爲於世矣 於此竊有所好 欲以之終年 鄉隣皆以吾爲笑 故作一詩以自慰 其詩曰春蚓秋蛇集衆姿 偷閒手寫宋唐詩 人言老眼催昏術 我謂貧家暴富資 但笑前瞻幾甲子 其將後顧 杏弓箕 猶懷五十年來懶 時撚霜鬢快讀之 願吾子加惠以一言 明吾之志而解人之惑 余曰唯唯 因次其詩韻 爲三疊以贈之”

未奉籃輿梅嶺道 남여를 받들어 매령의 길로 오지 못하니
 空吟水調玉樓篇 부질없이 수조의 옥루편을 읊노라
 秋霜滿鬢詩兼廢 가을 서리 살쩍에 가득하고 시마저 폐하니
 深覺工夫負古賢 공부가 옛 현인을 저버린 것 깊이 깨닫겠네⁴⁰

‘불원천(不怨天) 불우인(不尤人)’,⁴¹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을 탓하지 않는다⁴²는 말은 허적의 부도한 행동을 지적하고 간언하다⁴³ 유배를 당한 약천이지만, 이는 ‘세상을 걱정하기만 하고 권도(權道)에 어두웠던 자신’의 문제임을 말하고 있다. 곧, 활을 쏠 때 과녁을 맞추지 못한 것은 바로 활을 쏘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憔悴形容骸髒姿 나의 초췌한 형용과 곳곳한 자품
 南來一歲廢題詩 남쪽으로 온 지 일 년 동안 시를 짓지 않았노라
 病思陸氏醫方集 병이 드니 육씨의 의방집이 생각나고
 貧乏蘇公竹節資 가난하니 소공의 죽절자가 없노라.
 此地不須文弔屈 이 지역에서 굴원(屈原)을 조문하는 글 지은 것 없으니
 意天其以我爲箕 아마도 하늘이 나를 기자(箕子)로 삼으시려는가 보다
 只緣感子勤渠問 다만 그대가 간곡히 위문하는 것에 감사하여

40. 『藥泉集』 권2, 「余之南窟也 崔校理汝和 錫鼎 意余行路由鳥嶺 自榮川出迎咸昌 而余由八良峴以來 故不相值 到配後汝和寄咸昌二律 次韻以答」

41. 『中庸』 14장, “在上位 不陵下 在下位 不援上 正己而不求於人則無怨 上不怨天下不尤人”

42. 『中庸』 14장, “子曰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43. 『朝鮮王朝實錄』 숙종 5년 3월 19일 갑인조, 참조.

强把荒蕪報贈之 억지로 졸렬한 시구(詩句)를 가지고 답하노라⁴⁴

이 시의 「서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약전은 ‘남해에 온 후 병이 났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초췌하게 되었고, 더불어 시도 짓지 않았다. 하지만 성품은 여전히 곧음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여러 달이 지난 후, 점차 마음이 안정되면서 유자가 햇볕과 바람을 맞으면서 속을 채워가듯이, 조용히 화방사를 들르고,⁴⁵ 망운산을 오르면서⁴⁶ 찾아온 선비들과 책력을 계산하는 법을 강론하고, 시(詩)와 문장의 문예를 변론하면서⁴⁷ 그들을 가르치면서 지냈다.

그 와중에 지금까지 굴원을 조문하는 글을 지은 예가 없으니, 자신이 기자(箕子)가 되어 「굴송」과 같은 시를 써서 이곳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관원들을 교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곧, 「영유시」는 지금껏 유자에 관한 시를 지은 적이 없는 이 고장에서 굴원이 「굴송」을 지은 그 마음으로 시를 짓겠다는 말이다.

2) 「영유시」 20수

약전은 「영유시」의 서문에서 이 시를 ‘비흥에 가깝다’고 적고 있다.

44. 『藥泉集』 권2, 「次金生德恒示詩韻 并序」 세 번째 詩.

45. 『藥泉集』 권2, 「宿花房寺 贈文眼應森二師」

46. 『藥泉集』 권2, 「登望雲山」

47. 『藥泉集』 권2, 「次金生德恒示詩韻 并序」, “余竊南海 抱疾連月 聞晉州士人金君德恒習越人之術 請與相見 金君不以三餐爲遠 滄溟爲險 惠然來顧 留之二日 得其從容講乎曆算之法 辨乎詩章之藝”

‘비흥(比興)’⁴⁸은 시인의 예술적인 사유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방식은 『논어』에서 “공자가 강가에 서서 말하기를 모든 흘러지나감이 이와 같지 않은가? 밤낮없이 결코 그 흐름을 중단하지 않는구나!”⁴⁹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이미지를 학문하는 사람의 태도에 비유한 것과 같은 것이며, 시경에서 「관저」를 “후비가 군자의 덕을 기뻐해서 부른 노래[后妃說樂君子之德]”라고 보는 방식⁵⁰이다. 곧, 자연현상과 물상을 형상화함으로써 그 물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기시키는 방식이 그것이다. 약전은 앞에서 언급했던 「물길을 돌리는 돌」이라는 시에서 이 기법으로 시를 썼다.

그러면, 비흥의 수법을 빌려 ‘유자’를 노래한 약전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우선 유자(柚子)는 유자(儒者)와 그 소리가 같다. 그렇다면 약전은 유자를 통하여 유학자[선비]의 모습과 성품을 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시인 「팔월에 유자를 먹으니(…)」를 살펴보자.

八月南州秋事遲 팔월이라 남쪽 고을에 가을이 늦게 찾아오니

48. 유희은 “비란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흥은 일으킨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치에 가까이 하는 데는 같은 類로 정리하여 사태를 설명하고, 심정을 일으키는 데는 마음의 미묘한데 의지해서 사고를 매듭짓는다. 심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興이 생기고, 이치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비는 가슴 속에 울적한 분함을 지적해 표현하고 興은 비유를 돌려서 풍자한다. 대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처하기 때문에 시인들의 발상에 이 두 가지 기교가 존재했던 것이다. 比者附也 興者起也 附理者切類以指事 起情者依微以擬議 起情故興體以立 附理故比例以生 比則畜憤以斥言 興則環譬以記調 蓋隨時之義不一 故詩人之志有二也”(艾心彫龍, 「比興」)라고 하였다.

49. 『論語』 「子罕」, “子在川上 曰逝者如斯夫 不舍晝夜”

50. 『詩經』, 「周南」, “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 시경의 이 시를 모시집전에서는 후비의 덕을 노래한 것이라고 하였다.(시경, 김학주 역, 명문당, 1988, p.36 참조)

海山珍果尙靑皮 산해(山海)의 진귀한 과일 아직도 껍질이 푸르구나.
 還能簌簌噴香霧 역시 풍성하게 향기를 내뿜고
 已看盈盈孕嫩肌 차곡차곡 연한 살이 가득히 찼다오.
 林下愧先蘇子食 숲 아래에서 소자처럼 먼저 먹음 부끄럽고
 鄴中遙擬屈平師 영 땅 가운데 굴평 스승에게 멀리 견주노라.
 因茲更欲求人物 이로 인하여 다시 인물을 구하려 하노니
 誰是區生未學時 그 누가 구생(區生)이 아직 배우지 않을 때이고.⁵¹

이 시의 기련(起聯)과 함련(頷聯)에서는 가을이 찾아온 남해에 푸른 유자가 열려있는 모습과, 아직 푸른 유자이지만 연한 살이 가득차 있고, 그윽한 향기도 풍기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경련(頸聯)에서는 이렇게 좋은 과일을 부모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해하면서 이 시가 굴원의 「굴송」⁵²을 본받아서 쓴 것⁵³임을 말하고 있다. 이

51.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一首, 「八月食柚子猶靑 書示學子河漳 朴殷輅」

52. 「橘頌」, “하늘과 땅이 낳은 아름다운 나무 굴이 여기에 와서 토질에 맞추네. 명령을 받아서 옮기지 않고 오직 남쪽나라에만 나네. 깊고 단단해서 옮기기 어려운데 다시 뜻을 한결 같이 하네. 푸른 잎에 흰 꽃이 피어 어여쁜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네. 겹쳐진 가지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 둥근 열매가 많이 달려있네. 푸른 것 누른 것이 섞여 있어 빛나는 모양 눈 부시네. 정밀한 그 색 속이 하얀니 도를 지키는 군자와 같네. 향기도 그윽하여 장식하기 마땅하고 보기에도 좋아서 더럽지가 않네. 아아 어릴 때의 네 뜻은 남과 다른 데가 있었네. 홀로서서 옮길 줄 모르니 어찌 마음이 기쁘지 않으랴. 깊고 단단해서 옮기기 어렵고 마음이 넓어서 구하는 것이 없네. 세상을 외면하고 홀로 서서 마음대로 살면서도 세속에 흐르지 않네. 마음을 굳게 달고 스스로 조심하니 몸이 마치도록 허물이 없었네. 천성을 지키고 사사로운 마음이 없으니 천지에 함께 참여하겠네. 원컨데 추운 겨울에 나무가 모두 시들어도 그대는 길이 벗하고 싶네. 아름답고 고와 세속을 떠나 음란하지 않으니 군세계 그 이치를 지키네. 나이가 비록 젊다고 하지만 나의 스승이 될 만하네. 행동이 백이와도 비슷할 만하니 여기 두어 법으로 삼으리. 后皇嘉樹 橘徠服兮 受命不遷 生南國兮 深固難徙 更韋志兮 綠葉素榮 紛其可喜兮 曾枝剌棘 圓果搏兮 靑黃雜橘 文章爛兮 精色內白 類任道兮 紛緇宜脩 媿而不醜兮 爾幼志 有以異兮 獨立不遷 豈不可喜兮 深固難徙 廓其無求兮 蘇世獨立 橫而不流兮 閉心自慎 終不過失兮 秉德無私 參天地兮 願歲并謝 與辰友兮 淑離不淫 梗其有理兮 年歲雖少 可師長兮 行比伯夷 置以為像兮”

53. 굴원이 「굴송」에서 굴나무가 ‘세속에 떠나 홀로 우뚝한 모습’이나, 굴의 ‘껍질 속이 하얀 것이 군자의 마음과 같다고 하는 것’이나, ‘세속에 흐르지 않고 허물이 없으며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모습’이나, ‘서리와 눈이 내리더라도 두꺼운 잎은 푸르고 향 또한 그치지 않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굴의 여러 가지 모습을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바탕을 가지고, 천명에 따라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오래도록

부분은 「영유시」에 있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것은 단순히 이 시가 남해에서 자라는 유자를 노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자(柚子)를 통해서 유자(儒者)로서의 바른 삶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영유시」의 두 번째 시다.

馬過前村策故遲 말 타고 앞마을 지나면서 일부러 채찍질 더디게 하니
 祗緣貪賞老香皮 이는 다만 노랗게 익어 향기로운 껍질 보고 싶어서라오
 山霏洗出黃金面 산의 안개비는 황금 같은 얼굴을 씻어 내고
 海旭烘成白玉肌 바다의 햇별은 백옥 같은 살을 만들어 내었네
 野外疑登荀令坐 들 밖에서 순령의 자리에 오른 듯하고
 林間驚遇子房師 숲 속에서 자방의 스승을 만났노라
 知渠風味應同橘 그 풍미가 귤과 같음을 아노니
 自愧吳兒懷袖時 오 나라 아이가 소매에 품었던 때에 부끄럽네⁵⁴

약천은 앞마을을 지나면서 일부러 채찍질을 더디게 하여 천천히 간다고 한다. 그것은 ‘노랗게 익은 (유자의) 향기로운 껍질’이 비단 같아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약천의 이러한 모습은 곡포⁵⁵를 지날

향기를 퍼뜨리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귤송」을 지은 것처럼 보인다. 약천이 굴원의 「귤송」을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귤송과 같은 가치를 유자시에 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54. 『藥泉集』 권2, 「詠柚詩」二十首中 二首, 「九月行過前村 見黃熟者」

55. 『藥泉集』 권2, 「詠柚詩」二十首中 四首, 「入曲浦堡 見客舍庭前在樹者」, “곡포의 성 가를 다시 더디게 걸어가니, 층층 가지에 서리 맞은 노란 껍질을 보기 위해서라오. 曲浦城邊去復遲 層枝欣見飽霜皮”

때도, 남포⁵⁶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약천이 천천히 가면서 유자를 굳이 보려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남해의 산의 안개비와 바다의 햇볕에 의해 자란 유자가 ‘아름다워서만이 아니라, 광채가 나고 향기가 나는 그 덕을 사모해서’⁵⁷였다. 그러면 약천은 유자가 어떤 덕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色占中央知最正 색은 중앙을 차지하니 가장 바름을 얻었고

香同一瓣可稱師 향기는 한 줄기 향(香)과 같으니 스승이라 칭할 수 있네⁵⁸

유자의 색깔이 노란색이므로 오행으로 볼 때 토에 해당된다. 토는 오행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노란빛을 가진 유자는 오행에 있어 토의 역할처럼 가운데에서 모든 사물을 조율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덕을 지니고 있고, 또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덕을 지킬 수 있는 바름[正, 常]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용문사에 들어가서 소반에 올라온 것을 보다」라는 시를 보자.

霜後紺園圓滿遲 서리 온 뒤 감원에는 둥근 것 드무니

56.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五首, 「過蘭浦 見神祠庭前青黃相雜者」, “총사에서 너 때문에 나의 발걸음 더더지니 푸른 것과 노란 것 섞여 있어 비단 겹질 찬란하네. 叢祠爲汝更遲遲 雜糅青黃燦錦皮”

57.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十一首, 「追憶丙申冬宣政殿御前宣賜有感」, “盈盤磊落光搖目 滿袖提攜額透肌 懋德本非爲汝美 追愆今可作吾師 還憐受命難移性 頗似湘潭頌橘時”

58.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八首, 「寓舍手弄有感」

前身大聖渾金皮 전신이 대성이라 온통 금가죽이라도
 苦求上證常懸體 상증을 구하느라 몸이 항상 매달려 있고
 喜捨諸方且割肌 제방에 희사하느라 우선 자기 살을 베는구나
 鼻嗅呼來檀行者 코로 맡으며 단행자를 불러오고
 眼開參見巖禪師 눈이 열리니 벽선사를 보았노라
 修成正果知何日 정과를 만드는 것이 어느 날인지 아는가
 會待蜂王獻蜜時 봉왕이 꿀을 바칠 때를 기다려야 한다오⁵⁹

이 시는 유자를 큰 성인으로 비유하고 있다. 유자의 성인됨은 다른 시에서 유자는 “오래된 무소가죽과 같은 단단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⁶⁰ “죽은지가 오래되어도 향기롭고, 햇수가 오래되어도 변치 않는 협객의 기골을 가지고 있으며”,⁶¹ 또, “황금 같은 얼굴과 패옥같은 살”⁶²을 지니고 있어 “금으로 치이의 상을 주조한 듯한 고상한 풍채와, 얼음으로 고양이 살을 엉겨 놓은 듯한 상쾌한 기상⁶³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단단한 자질과 협객의 기골, 고상한 풍채는 어떻게 기를까. 약전은 용문사를 들러 그곳에서 나무에 매달려 노랑계 익어가는 유자에게서 사기를 수련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상구보리(上求菩提) 정신과 중생을 제도하여 편안하게 하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정신

59.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三首, 「入龍門寺 見登盤者」

60.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十二首, 「隣人有以初結自落者授乾爲冠纓, “堅姿已似老犀皮”

61.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十三首, 「又有授乾爲棋子者, “死久猶香眞俠骨 年多不化定僂肌

62.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二首, 「九月行過前村 見黃熟者, “山霏洗出黃金面 海旭烘成白玉肌”

63.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九首, 「望見前林方好熟玲瓏者, “高風金鑄礪夷像 爽氣氷凝姑射肌”

을 마주하게 된다.

유자는 오랜 시간을 비바람을 맞으며, 겨울의 찬 서리를 맞으며, 따가운 햇살에 그을리며 금빛 향기 나는 유자로 변해간다. 그리고는 자신의 살을 아낌없이 나누어준다. 그야말로 부처님 같은 성인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약천은 용문사의 법당에 있는 부처님과 유자를 교차시키면서 유자의 덕을 칭송하고 있다. 『채근담』에도 “남의 과오는 용서하고 자기에게 과오가 있으면 용서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치욕은 마땅히 참으며, 다른 사람이 치욕을 받으면 참지 않아야 한다”⁶⁴고 하지 않던가. 참으로 오래 수행한 뒤에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의 결정체인 ‘정과’는 이러한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할 것이다.

다음은 문묘의 뜰에서 자라는 유자를 보면서 쓴 시다.

夫子宮牆晚景遲 부자의 궁장 저녁 햇빛이 늦은데
繞庭佳實爛黃皮 뜰 가득히 아름다운 열매 노란 껍질 찬란하네
還如古杏垂壇影 행단(杏壇)에 드리운 살구나무 그림자인 듯
不比夭桃雪黍肌 아름다운 복숭아도 눈 같은 살과 비할 수 없네.
入室芝蘭皆益友 방 안에 들어오면 지초(芝草)와 난초 모두 유익한 벗이요
後凋松柏並嚴師 늦게 시드는 소나무와 측백나무 모두 엄한 스승이랴오.
臨風三嗅仍多感 바람에 임하여 세 번 냄새를 맡으며 감회가 많으니
一晝要尋上剝時 한 획 모름지기 박괘(剝卦) 위에서 찾아야 하리⁶⁵

64. 『菜根譚』 168장, “人之過誤宜恕 而在己則不可恕 己之困辱宜忍 而在人則不可忍”

65.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六首, 「入文廟 見滿庭蔥鬱者」

문묘는 공자를 모신 사당이다. 약전은 문묘에서 뜰 가득히 자라고 있는 유자를 보면서 그 찬란함에 감탄한다. 그러면서 유자나무를 살구나 무나 은행나무와 같이 유학의 유구한 정신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라 여기고 있으며, 지초와 난초처럼 항상 변함없이 깊고 그윽한 향기를 지닌 벚으로 여기고, 또 소나무와 측백나무처럼 한겨울에도 늘 푸르름을 간직하며 곧고 의로운 덕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주역의 박괘(剝卦)를 언급한다. 약전이 박괘를 언급한 것은 약전이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剝卦는 어떤 괘인가.

박괘는 ‘산지박(山地剝)’으로 위에 산(山)이 있고, 아래에 지(地)가 있는 괘이다. 박괘는 아래에서 시작해서 5개의 효가 모두 음(--)이고, 맨 위에 양효(—)가 덩그러니 남아있다. 이 모습은 陰[소인]이 양[陽] [君子]을 다 몰아내고 맨 마지막으로 양이 하나 위태롭게 남아 있는 형상이다. 곧, 소인이 군자를 몰아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주역』에서는 이 괘를 “가도 이롭지 않다”⁶⁶고 하여 ‘군자가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때라고 한 것이다.⁶⁷

다음의 시는 약전이 살던 시기가 얼마나 부조리한 사회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먼저 열다섯 번째 시⁶⁸를 보자.

66. 『周易』, 「山地剝」, “剝 不利有攸往”

67. 『대산주역강의』, 대산 이석진 저, 한길사, 2001, p. 553-556 참조.

68. 『영유시』의 열다섯 번째와 열여섯 번째 시는 모두 題目이 序文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목에서 시를 쓰는 이유를 적어 놓았는데 매우 구체적이다.

“이 지방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수십 년 전에는 마을의 집에 유자 나무가 곳곳마다 숲을 이루어서 매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는 유자의 누런빛이 숲에 찬란하여 바라보면 구름비단과 같았는데, 근래에 마을 백성 중에 유자나무가 있는 집이 있으면 관청에서 장부를 만들어 등재하고는, 가을철 유자가 익을 때에 아전을 보내어 나무마다 숫자를 세어 두었다가 거두어 갔다. 백성들은 이미 아전에게 바치는 비용이 많고 또 관청에 바치는 수고로움이 있으며, 심지어는 혹 숫자를 세어 간 뒤에 바람으로 인해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 주인이 다른 곳에서 사다가 더 보태어서 그 숫자를 채워야 했다. 그러므로 관리와 품관(品官)으로서 다소 세력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하호(下戶)와 백성들은 모두 유자나무 뿌리에 불을 놓고 나무를 베어서 그 폐단을 없앴다. 이 때문에 유자나무를 심는 집이 예전에 비하여 십분의 칠팔 할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서글퍼하였으니, 이는 바로 (子美)의 시에 ‘고을 백성들이 소중한 밀감을 중하게 여기지 않음은, 호리의 침해에 핍박받기 때문이라오[邦人不足重 所迫豪吏侵]’ 라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백성의 윗사람된 자들에게 알리고 싶었으나 방법이 없으므로, 인하여 시를 지어 홀로 읊었다.”⁶⁹

이 글은 그야말로 『예기』의 「가정맹어호」나 정약용의 「애절양」⁷⁰을

69.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十五首, 「聞土人言 數十年前村家柚樹 處處成林 每於秋冬之際 黃色耀林 望如雲錦 邇間村民有柚樹者 自官成籍 秋熟時遣吏逐樹點數而收之 民既多供吏之費 且有納官之勞 至或點數後有因風搖落者 則不免他買而益之 以充其數 故除官吏品官稍有力勢者外 凡下戶小民則皆燒根斫株 以絕其弊 以此種柚家比前殆減十之七八云 余聞而傷之 此正子美詩邦人不足重 所迫豪吏侵者也 欲以聞於處民上者而不可因成獨謠」 이하 詩.

70. 『禮記』〈단궁하〉, 「苛政猛於虎」나 정약용의 「哀絕陽」은 모두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읽는 듯하다. 유자를 세금으로 거두어가는 관리들의 횡포와 부패, 그리고 가혹한 세금수탈로 인해 유자나무를 불태우고 베어버리는 고통 받는 백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적고 있다. 다음의 열여섯 번째 시에서도 약천의 안타까움과 한스러움은 그대로이다.

除雖容易養曾遲 제거하기는 용이하나 기르기는 참으로 더디니
 歎息官園剗地皮 관청의 동산 땅바닥을 깎아낸 것 한탄스럽네
 但見連槽騰駿骨 다만 연이은 마구간에 날뛰는 준마(駿馬)만 보일 뿐
 更無張罽護香肌 다시는 천막 치고 향기로운 살 보호하는 이 없더오
 今人不及古人遠 지금 사람들은 크게 옛사람만 못하니
 前事誰教後事師 예전의 일을 누가 후인들에게 본받게 할꼬

東閣亦曾爲馬廐 동각 또한 일찍이 마구간이 되었으니
 從來物盛有衰時 예로부터 물건이 성하면 쇠할 때가 있다네.⁷¹

유자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는 “위(胃)의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천식을 없애주고 풍토병을 이기도록 해주며”,⁷² 또 유배를 온 사람들에게 “장독(杖毒)을 치유해주는” 귀한 과일이다. 그런데, 이지방의 관

함을 말하고 있는 고사이다. 「가정맹어호」는 세금이 무서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산에 살아야하는 백성의 처지를 실감나게 적고 있으며, 「애절양」은 세금 때문에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린 남편의 아내가 울부짖는 시이다.

71.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十六首, 「邑人云前日縣衙軒前 柚樹甚盛 結實蕃碩 雖在深冬 張口以防霜雪 則可經歲不落 爛熟之久 美味絕勝於他 甚可珍也 近間作馬廐於其側 糞穢蝕根 枯死且盡云 昔子瞻於萬松亭傷來者之不嗣其意 有好德無人助我儀之句 余亦感此衰盛 吟以自遣」

72. 『藥泉集』 권2, 「詠柚詩」 二十首中 十七首, 「本草曰 柚子去胃中惡氣 此可知其性味之良 而今聞土人言 除濕痰勝瘴氣 毋踰於柚子(…)」

리들은 유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나아가 백성의 삶에 이로운 유자나무를 보호하지 않고 자신들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 나무가 썩어가도록 만든다.

이러한 관리들의 행동은 “하늘이 물건을 낼 때에 반드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제재하는 것이 있어서, 손(損)이 지극한 곳에는 유익함이 있게 하고, 해(害)가 심한 곳에는 이롭게 하는 것”이 있어 어느 물건이든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인데, 더군다나 남해 지역에 더없이 유익한 나무를 함부로 하여 없어지게 하는 것은 天命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 그릇[邪]된 일련의 일은 반드시 원래의 바름[正]으로 회복될 것임도 아울러 말하고 있다.

그것은 역(易)에서 박괘의 다음 괘로 복괘(復卦)를 제시하였는데, ‘복괘’는 박괘와 정반대로 뢰(☵) 위에 지(☶)가 있는 괘다. 박괘에서 맨 나중으로 밀려나 있던 양이, 복괘에서는 맨 앞에 놓임으로써 새로운 양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일양생춘(一陽)生春하는 의미의 괘이다. 곧, 지금은 간신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은 지나갈 것이라는 말이다.

4. 맺는말

비홍은 어떤 것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감정을 의탁하고 또 일으키고자 하는 수사적인 기법이다. 이는 어떤 필요성에 응하며 어떤 기능을 가지고 활용되어 진다. 약천이 남해 유배시에 작성한 「영유시」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약천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약천집』에는 「영유시」와 「물길을 막는 돌」이라는 시를 제외하고는 비홍의 방식으로 쓰여진 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만큼 「영유시」 20수는 약천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약천의 남해시기의 유배시를 검토하기 전에 약천의 성품이 어떠한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약천의 삶의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현종의 약천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나듯이 약천은 마음이 강직하고 곧은 인물임에는 분명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여 백성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마음으로 살피주는 애민관이었음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락정에서」라는 시에서 보듯이 약천의 즐거움은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이었으며, 스스로 노는 것을 경계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었고, 「물길을 돌리는 돌」이라는 시에서는 물[水]과 돌[石]이라는 자연사물의 보편적인 현상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돌이 물길을 막고 있지만 영원히 물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약천의 이러한 생각은 남해에 머물면서 유자(柚子)를 통하여 유자(儒者)의 삶을 경계하기 위한 시인 영유시 속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것은 주역의 박괘를 시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점과 유자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의 삶을 형상화하는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약천은 박괘에서 말하고 있듯이, 현실은 소인배들이 군자를 몰아내는 시기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도 박괘 뒤에 복괘가 오듯이 공명정대한 세상이 도래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음도 볼 수 있었다.

약전은 남해가 유자가 많이 나는 좋은 고장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자는 장독에 좋다는 말을 했다. 약전의 이말은 단순히 유자가 유배 온 사람의 육신을 치유하는데 이롭다는 말에서 머물지 않고, 유배를 온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니 조선의 문제를 치유하는데 있어 더없이 좋은 과일임을 말하고 있었다. 이런 과일이 나는 남해는 그래서 더없이 좋은 고장이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詩經』

『禮記』

『論語』

『中庸』

『孟子』

『菜根譚』

『荀子』

『范文正公集』

『古文眞寶後集』

『朝鮮王朝實錄』

『國譯 藥泉集』, 성백호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2004.

『대산주역강의』, 대산 이석진 저, 한길사, 1999.

2. 논문집

강신엽, 「남구만의 국방사상」, 『민족문화』 14집, 민족문화추진회, 1991.

강신엽, 「남구만의 정치사상」, 『소헌 남도영 박사 고회기념 역사학논총』, 민족문화사, 1993.

장정룡, 「동해시 망상동 유적과 약천 남구만 시조작품」, 『강원민속학』 11집, 강원도 민속학회, 1995.

성당제, 「상소문의 문예미와 현실대응」, 『인문과학』 36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성당제, 「남구만 시의 품격」, 『한국한문학연구』 35집, 한국한문학회, 2005.

이승철, 「동해 약천마을과 약천 남구만의 시조 엮보기」, 『강원민속학』 20집, 강원도 민속학회, 2006.

김영주, 「약천 남구만의 문학론연구」, 『퇴계학과 한국문화』 33집,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8.